

## 근세 전기의 괴이소설(怪異小説)과 웃음(笑い)

사에키 다카히로

### 1

근세의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괴이소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에다 아키나리의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이지만, 본고에서는 『우게쓰모노가타리』보다 이전인 근세 초기, 전기의 단편집 형식의 괴이소설을 다루고 그 안의 괴이가 아닌 웃음의 요소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근세 후기의 게사쿠(戯作)나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괴이와 웃음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선학들의 논고에 의해, 요괴물 기표시(黄表紙)나 다양한 요괴 분류 속에 요괴의 ‘상품화’, 친숙한 ‘캐릭터’화, 오락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주석1) 즉 근세 후기에는 무서워야 할 요괴가 현대의 키티나 큐피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캐릭터’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처럼 괴이가 오락화되고 괴이물에 웃음의 요소가 혼입된 것은 교호(享保) 16~20년(1731~35) 경의 간행(주석2)으로 추정되는 우키요조시(浮世草子) 『괴담 오토기자쿠라(怪談御伽桜)』에도 보이며, 게사쿠에 선행하는 작품으로 이미 야마구치 다케시(山口剛) 씨, 최근에는 미야모토 유키코(宮本祐規子) 씨, 곤도 미즈키(近藤瑞木) 씨가 주목하고 있다.(주석3)

필자는 이전 편집에 관련하여 잡지 부록 CD(주석4)를 작성하는 작업에서 근세 전기의 주된 괴이소설을 개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괴이집 중에 괴담답지 않은 이야기나 우스개의 요소를 가진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이 인상에

남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괴이와 웃음의 혼합이나 괴이의 오락화가 일찍이 근세 초기의 가나조시(仮名草子)나 근세 전기의 우키요조시의 괴이소설 속에 이미 그 징후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개관한 작품명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기이조단슈(奇異雜談集)』 편자미상. 사본은 상하 2책. 판본은 6권 6책. 근세 초기의 성립(?). 사본(39화가 수록)이 먼저 유포되고 일부를 생략한 상태에서 1687년(貞享四年)에 판본(34화 수록)이 간행.
- 『인가모노가타리(因果物語)』(히라가나 본(平仮名本)) 스즈키 쇼조(鈴木正三) 원작. 히라가나 본은 가타가나 본을 증보하여 문학성을 강화한 것으로,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편찬(?) (쇼산 제자인 게이추(惠中) 편찬이라는 설도 있다.)
- 『소로리모노가타리(曾呂利物語)』(『曾呂里物語』) 작자미상. 5권 5책. 1663년(寛文三年) 간행. 성립을 더 이전인 1660년(万治三年) 경으로 보는 설도 있다. 전41화.
- 『오토기보코(伽婢子)』아사이 료이(淺井了意) 지음. 13권 13책. 1666년(寛文六年) 간행. 전68화.
- 『도노이구사(宿直草)』(별명 『오토기모노가타리(御伽物語)』) 오기타 안세이(荻田安静)가 필록한 원저를 도미오 지센(富尾似船)이 증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5권 5책. 1677년(延宝五年) 간행. 전68화.
-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諸国百物語)』작자미상. 5권 5책. 1677년(延宝五年) 간행. 전100화.
- 『신오토기보코(新御伽婢子)』니시무라 이치로에몬(西村市郎右衛門, 일명 洛下寓居)지음. 6권 6책. 1683년(天和三年) 간행. 전48화.
-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宗祇諸国物語)』 랏카료칸(洛下旅館) (니시무라 이치로에몬(西村市郎右衛門)?) 지음. 5권 5책. 1685년(貞享二年). 전36화.
- 『고곤 하쿠모노가타리 효반(古今百物語評判)』아마오카 겐린(山岡元隣) 지음. 겐로(元怨)가 보필 편집. 5권 5책. 1686년(貞享三年) 간행. 별명 『하쿠모노가타리 효반(百物語評判)』. 전42화.

- 『아사쿠사슈이모노가타리(淺草拾遺物語)』랏카료칸(洛下旅館)(니시무라 이치로에몬(西村市郎右衛門?) 지음. 4권 4책. 1686년(貞享三年) 간행 추정. 전16화(단, 권4 말미의 한 이야기는 제목만 남아 있고 본문은 결락)
- 『오토기 비구니(御伽比丘尼)』 니시무라 이치로에몬(西村市郎右衛門) 지음(대작자를 상징하는 설도 있다). 5권 5책. 1687년(貞享四年) 간행. 전22화.
- 『이누하리코(狗張子)』아사이 료이(淺井了意) 작품. 7권 7책. 1692년(元祿五年) 간행. 전45화.
- 『다마쿠시게(玉櫛笥)』 하야시 기탄(林義端)(분카이도(文会堂)) 지음. 7권 7책. 1695년(元祿八年) 저자 서문. 전31화.
- 『다마하하키(玉箒子)』(『다마하하키(玉箒木)』라고도 한다) 하야시 기탄(林義端) 지음. 6권 6책. 1696년(元祿九年) 간행. 전17화.
- 『젠아쿠무쿠이바나시(善惡報ばなし)』 작자미상. 5권 5책. 성립은 1670년(寛文十年) 무렵으로 추정되지만, 가행은 늦어져 1693~97년(元祿六~十年) 무렵 간행. 전61화.
- 『우츄노토모(雨中友)』(개정본 『반세이 하쿠모노가타리(万世百物語)』) 작자미상. 5권 5책. 1697년(元祿十年) 서문. 유일한 전본(도호쿠대학(東北大学) 가노문고본(狩野文庫本))이 권3까지의 단본(端本)으로 간행기록이 없으며 서명의 우모레기(埋木) 등의 상황에서 괴이물 가나조시(仮名草子)의 개제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751년(宝暦元年) 간행의 개정본 『반세이 하쿠모노가타리(万世百物語)』(『우유안(烏有庵)』의 작품으로 보는 서문을 갖는다)가 있으며 권4 이후는 개정본에 의한다. 전20화.
- 『고젠오토기(御前於伽)』미야코노니시키(都の錦) 지음. 6권 6책. 1692년(元祿十五年) 간행. 전24화.
- 『슈이 오토기보코(拾遺御伽婢子)』 류시도(柳絲堂) 지음. 5권 7책. 1704년(宝永元年) 간행. 전24화.
- 『다마스다레(多満寸太礼)』 쓰지도 조후시(辻堂兆風子) 지음. 7권 7책. 1704년(宝永元年) 서문. 전27화.
- 『긴교쿠네지부쿠사(金玉ねちぶくさ)』(별명 『긴긴네지부쿠사(金銀ねちぶくさ)』) 쇼카도(章花堂) 지음. 8권 8책. 1704년(宝永元年) 간행. 전21화.
- 『오토기닌교(御伽人形)』나무라 쇼켄(苗村松軒) 지음. 6권 6책. 1705년(宝永二年) 간행. 전43화.
- 『오토기 하쿠모노가타리(御伽百物語)』아오키 로스이(青木鷺水) 지음. 6권 6책. 1706년(宝永三年) 간행. 전27화.

- 『쇼코쿠인가모노가타리(諸国因果物語)』(별명 『긴다이 인가모노가타리(近代因果物語)』)아오키 로스이(青木鷺水) 지음. 6권 6책. 1707년(宝永四年) 간행. 전30화.
- 『신타마쿠시게(新玉櫛笥)』아오키 로스이(青木鷺水) 지음. 6권 6책. 1709년(宝永六年) 간행. 전19화.
- 『히토요부네(一夜船)』호쥬 단스이(北条团水) 편. 6권 6책. 1712년(正徳二年) 간행. 전26화. 책방에 들어온 작자불명의 초고를 보정한 취지의 서문을 믿는다면 실제 작자는 미상이고, 단스이가 보필하고 편집. 또한 초고 작자를 단스이의 제자 아즈마우타(東歌)로 보는 설이나 서문을 허구로 보고 단스이 실제 작품으로 보는 설도 있다.
- 『와칸노리아이부네(和漢乗合船)』라쿠게쓰도 소시(落月堂操后) 지음. 6권 6책. 1713년(正徳三年) 간행.
- 『가이슈야코노다마(怪醜夜光魂)』가라쿠인시 온큐(花洛隠士音久) 지음. 5권 5책. 전20화.
- 『타이헤 하쿠모노가타리(太平百物語)』시추산닌 유사(市中散人祐佐)(간쇼도닌 게이추 거사(菅生堂人惠忠居士))지음. 5권 5책. 1732년(享保十七年) 간행. 전50화. 작자는 판원(版元)인 오사카(大坂)의 책방 가와치야 우헤이(河内屋宇兵衛)일까?
- 『가이단 오토기자쿠라(怪談御伽桜)』도신샤 운포(都塵舎雲峰) 지음. 5권 5책. 1731~35(享保十六~二十年) 무렵 간행. 전15화.
- 『오토기아쓰케쇼(御伽厚化粧)』히텐사이(筆天齋)(나카오 이스케(中尾伊助))지음. 5권 5책. 1734년(享保十九年) 간행. 전15화.
- 『신설 하쿠모노가타리(新説百物語)』고코도슈진(高古堂主人) 지음. 5권 5책. 1767년(明和四年) 간행. 전53화.
- 『긴다이 하쿠모노가타리(近代百物語)』도리가이 스이가(鳥飼醉雅) 지음. 5권 5책. 1770년(明和七年) 간행. 전15화. 작자 스이가(醉雅)는 본작의 판원(版元)인 오사카(大坂)의 책방 기치몬지야이치베(吉文字屋市兵衛)(단, 본작 서문에는 여러 지방을 편력하는 승려가 전문한 괴담을 이야기한 것을 가와사키(川崎)씨가 기록한 책을 얻어 판행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이상 근세 전기의 가나조시, 우키요조시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괴이소설을 망라해 보았는데, 사이카쿠(西鶴) 작품 중 괴이의 색채가 있는 잡화물(雜話物) 『사

이카쿠 쇼코쿠바나시(西鶴諸国ばなし)』(조쿄(貞享) 2년(1685)간행)와 『후토코로 스즈리(懷硯)』(조쿄 4년(1687)간행)는 넣지 않았다. 이미 정설이 된 것이지만, 사이카쿠 작품에서 작자의 관심은 인간, 시시각각 실사회 속에서 동요하는 '세상 사람 마음'의 양태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가에 있다. 『사이카쿠 쇼코쿠바나시』서문의 '사람은 요물'이라고 한 말에 사이카쿠의 관심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이카쿠 작품에서 왕왕 괴이는 인간의 불가해함이나 강인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역'에 불과하며, 한편 대단한 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카쿠의 괴이담은 무섭지가 않다. 이번에는 내용이나 서명 때문에 종래 '괴이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던 작품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기에 사이카쿠는 생략했다.

또한 말기 우키요조시에는 우키요조시라고 해야 할지, 초기 요미혼(読本)이라 해야 할지, 분류나 경계를 짓기가 어려운 작품군이 있다. 최근에 시노하라 스스무(篠原進) 씨는 이러한 경계영역을 '기수역(汽水域)'이라고 칭하였고, 또한 이쿠라 요이치(飯倉洋一) 씨는 '기담(奇談)'이라는 장르의 관점에서 문학사의 결절점으로서 주목하였다.(주석5) 그러한 경계기의 괴이물 작품 중 조칸보 고아(静観房好阿) 작품인 『오토기우쓰보자루(御伽空穗猿)』(겐분(元文)5년(1740)간행), 『가이단 도시오토코(怪談登志男)』(간엔(寛延) 3년(1750)간행), 『가이단 오토기와라와(怪談御伽童)』(메이와(明和) 9년(1772)간행)은 넣지 않았고, 한편 요미혼으로 분류될 때가 많은 『신세쓰 하쿠모노가타리(新説百物語)』(메이와 4년(1767)간행), 『긴다이 하쿠모노가타리(近代百物語)』(메이와7년(1770)간행)를 넣는 등 통일적이지 않은 형태가 되어 버렸다.

우선 괴이물 CD를 작성했을 때 수록된 것은 26작품이었는데, 이에 6작품을 증보하여 삽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을 다시 넣을 작정이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철저히 다 되지 않은 '중간보고' 정도의 상태라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빠진 부분도 많을 것이라는 점도 양해를 구해둔다.

## 3

도입은 이쯤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일람에 열거한 작품군 중 열 몇 작품에서 장(章) 수로 40개 정도의 ‘웃음’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조사가 아직 불충분한 데다가 무엇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가 하는 ‘웃음’의 급소를 판단하는 것은 실로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수 자체로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찾으려면 괴담집 중에 ‘웃음’, ‘재미’의 요소는 대단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

괴이소설 속에 혼입되는 ‘웃음’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보자.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 (A) 동물에게 홀리는 이야기
- (B) 인간이 스스로 추태를 보이는 이야기
- (C) 괴이한 일을 꾸며내거나 혹은 오인하는 이야기
- (D) 언어유희를 포함하는 이야기
- (E) 이야기 구조에 라쿠고(落語)적인 ‘웃음’의 요소가 갖춰진 이야기

### (A) 동물에게 홀리는 이야기

동물의 괴이담은 중고, 중세 설화에도 많이 보여 전형적, 대표적인 괴이설화의 ‘틀’이라고 해도 좋다. 사람으로 둔갑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동물로는 여우, 너구리, 고양이, 뱀, 거미 등을 들 수 있는데, 유머러스한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여우가 많다. 그만큼 여우가 당시 사람들에게 비근한 존재이며 ‘여우가 둔갑한다’는 것도 괴이라기보다는 ‘현실’,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지방 하쿠모노가타리(諸国百物語)』 1권의 6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어느 야마부시(山伏)가 산 속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여우가 느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야마부시는 여우 귀에 대고 나각(소라고동에 구멍을 내 만든 악기)을 붙여 소리를 냈다. 여우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야마부시는 유쾌했다. 그 날 저녁 머물 곳이 없었던 야마부시는 묘지 화장터 천정에 올라가 하룻밤 묵는다. 한밤중에 장례 행렬이 찾아와 장례를 마친 후 시체에 불을 붙이고 가버렸다. 갑자기 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몸을 부르르 떨고 일어나 천정에 있던 야마부시에게 다가온다. 놀라고 무서웠던 야마부시는 죽은 사람에게 쫓겨 천정에서 떨어진다. 정신을 차리자 그곳은 원래 들판이었고, 벌써 해도 높이 솟아 있었다. 모든 것이 야마부시가 놀라게 한 그 여우의 짓이었다.

사람을 상대로 여우나 너구리가 둔갑하는 이야기는 이외에도 『인과 이야기(因果物語)』 5권의 1, 『오토기보코(伽婢子)』 9권의 1, 『다마스다례(多満寸太礼)』 6권의 3, 『와칸노리아이부네(和漢乗合船)』 4권의 1, 『다이헤 하쿠모노가타리(太平百物語)』 5권 제39, 『가이단 오토기자쿠라(怪談御伽桜)』 4권의 1, 4권의 2 등이 있다. 승려나 무사, 똑똑한 척하는 장사치, 의사 등 지식인이라 할 만한 신분의 사람이 동물에게 완전히 속아 추태를 보인다. 『다이헤 하쿠모노가타리』 1권 제3이나 『긴다이 하쿠모노가타리』 4권의 2는 줄거리를 제시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해를 입은 여우가 보복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흘리는 이야기이며, 후자는 남색이 들통나는 이야기 계통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도 감돈다. 보복이기는 하지만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처참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흘려서 우스개로 만드는 일종의 ‘어이없음’이 재미를 자아낸다.

## (B) 인간이 스스로 추태를 보이는 이야기

(A)의 동물에게 흘리는 이야기도 사람이 추태를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도 있다. 괴이의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소기 여러 지방 이야기(宗祇諸国物語)』 2권의 2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2월 중순에 교토의 벚꽃 구경을 온 인파를 피한 소기(宗祇)는 후시미(伏見) 마을의 스미조메(墨染) 벚꽃을 보러 나가 혼자 옛노래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러자 옆

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억지로 술을 권하며 다가왔다. 거절하자 칼을 뽑아들고 덤비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잔 들이키자 또 무리하게 강요한다. 곤란해진 소기가 교카(狂歌)를 읊자 취객들은 부끄러워졌는지, 아니면 취기가 가셨는지 재빨리 떠나 버렸다.

술자리에서 빚어지는 추태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토기 비구니(御伽比丘尼)』 1권의 4도 벚꽃놀이 하는 곳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집요하게 수작을 걸던 무사가, 여자들이 권하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칼과 옷을 빼앗기는 이야기이다. 술과 더불어 호색 때문에 빚어진 망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 (C)괴이한 일을 꾸며내거나 혹은 오인하는 이야기

사람이 짓곳은 마음에 괴이한 일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겁주려는 이야기나 ‘무섭다,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공포심에서 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괴이라고 오해하는 이야기이다. 독자가 처음부터 가짜 괴이라고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별별 떠는 작중인물은 독자의 눈에 골계로 비친다. 한편 독자도 처음부터 정체를 몰라서 작중인물과 함께 공포를 느낀 경우에는 마지막에 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 판명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의외였다는 심정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도노이구사(宿直草)』 2권의 7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어느 밤 젊은이들이 모여 도깨비가 산다는 신사(神社)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그 신사로 가겠다’며 만류도 뿌리치고 결국 내기를 하고 나섰다.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겁주자’고 계획하여, 한 명이 흰 기모노에 풀어헤친 머리를 하고 신사로 먼저 가서 별벌 떨면서 신사 출입문 위에서 잠복했다. 한편 맨 처음 그 사내도 혈기가 앞서 나서긴 했지만 겁이 나기에 도깨비 가면을 쓰고 붉은 기모노를 입고 갔다. 문 위에 있던 자는 이를 보고 도깨비인가 싶어 겁을 먹고, 도깨비로 분장한 남자 역시 문 위의 흰 옷 입은 자를 보고 덜덜 떨었다. 위에 있던 사내는 결국 문에서 떨어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기절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나 살피러 갔다가 둘을 발견하여 깨우고, ‘가짜는 안 되겠다’며 서로 웃었다.



이 외에도 『도노이구사』 4권의 12, 『우추노토모(雨中友)』 5권의 3 등도 괴이의 위조, 『도노이구사』 4권의 1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5권의 17 등도 괴이를 오인한 이야기이다.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다마하하기(玉簫子)』 4권의 2에서, 이야기 전반은 주인공 남자가 이웃집 아내와 밀통했었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도 이웃집 남자와 통정하고 있었다는 더블 불륜 설정이다. 남자가 밤에 몰래 온 것을 보고 요괴로 착각한다는 우스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이 되면 고덕한 스님이 남자의 전생의 인연을 알기 위해 선정에 들어가 소생하게 되는데, 남자는 신덕과 조상의 가호에 의해 살아나고 밀통하던 남자는 일찍 죽게 된다는 괴이담다운 줄거리로 되어 있다. 『오토기 비쿠니』 2권의 2도 전반에는 어떤 한량이 흰 쥐를 보고 ‘복을 주는 신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여 축하연을 여는데, 사실은 그저 검은 쥐에게 우동 가루가 묻어 하얗게 된 것임을 알고 크게 웃음거리가 된다. 후반은 남자의 꿈에 대흑신(大黒神)이 나타나 ‘쥐가 다닌 길을 보라’고 계시한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성실하게 일하라’는 가르침이 적혀 있어서 이후 남자는 개과천선하였다. 우스운 이야기와 영험담을 융합시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괴이의 위조라고 하면 중세 교겐(狂言) 작품에 『부아쿠(武悪)』, 『누시(塗師)』, 『이시가미(石神)』, 『니오(仁王)』 등, 가짜 유명이나 가짜 신불 취향의 작품이 있다. 이러한 교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지도 모르겠다.

## (D)언어유희를 포함하는 이야기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유머에 해당하는 언어유희, 명언이나 속담의 패러디, 재담, 수수께끼 등을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소기 쇼코쿠하쿠모노가타리』 1권의 2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여행길 도중에 무사시노에서 소기(宗祇)가 목이 말라 어느 민가 여인에게 차를 청했다.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장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가 난 소기가 ‘굳게 닫아둔 장지문이 마실 차라면 문간에 입을 대고 마셔야겠구나’라고 교카(狂歌)를 읊고 떠나려 하자, 여인이 차를 가지고 나와 소기의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차 한 잔 테을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 어찌 화를 끓이십니까’라고 답가를 했

다. 소기는 여인의 기지에 마음이 끌렸지만 해질녘이 되어 그냥 떠나버렸다.

물을 ‘끓이다’와 화를 ‘끓이다’를 겹쳐서 쓴 언어유희이다. 『소기 쇼코쿠하쿠 모노가타리』 3권의 5, 5권의 1 등에도 이러한 언어유희의 문답이 보이고, 『오토기 비쿠니』 2권의 1에는 유명한 말을 패러디하는 유녀들의 문답, 『가이단 오토기자쿠라』 3권의 1에는 ‘니안마미다불(にやんまみだ仏)’, 『신세쓰 하쿠모노가타리』 1권의 1 삽화에는 ‘나무우미토후(なむうみ豆腐)’라는 말장난(고양이 울음소리, 외국인 말투와 ‘나무아미타불’을 이용한 언어유희)이 보인다.

또한 ‘둔갑물 문답’과 비슷한 틀의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풀어 둔갑물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다. 『소로리 모노가타리(曾呂利物語)』 4권의 4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이요(伊予) 지방에 있는 어느 산사에 언제부터인가 요물이 나타나 주지승을 데려가 버려 절은 매우 황폐해졌다. 한 승려가 이 절의 주지가 되겠다며 막무가내로 절에 머문다. 밤이 되고 나니 “엔요보(円遥坊) 계십니까? 곤카의 고넨, 켄야의 바토, 손케이의 삼족, 곤잔의 규보쿠이입니다(こんかのこねん、けんやのばとう、そんけいが三足、こんざんのきうぼくでございます)”라고 안내를 청하는 목소리가 나서, 엔요보가 나와 여러 가지로 대접을 했다. 승려는 바케모노 이름에서 ‘엔요보’는 둥근 표주박(丸瓢箪), ‘곤카노 고넨’은 메기(鯰), ‘켄야노 바토’는 말의 머리, ‘손케이의 삼족’은 다리가 세 개인 개구리(蛙), ‘곤잔노 규보쿠’는 오래된 썩은 나무가 나이를 많이 먹어 둔갑한 것임을 간파하고, 그 둔갑물들을 모두 몽둥이로 때려 퇴치했다. 승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받았고 절을 재흥시켰다.

‘켄야(乾谷)의 바토(馬頭)’ 즉 ‘북서쪽 방향 계곡의 말 두개골’처럼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수수께끼이며, 『도노이구사』 1권의 1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다. 옛날 이야기의 ‘게 문답(蟹問答)’, 교젠의 『둔갑 게(蟹化物)』가 이와 비슷한 발상의 이야기라 영향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긴다이 하쿠모노가타리』는 전반이 언어의 기교로 말솜씨로 꾀이를 웃어넘기는 이야기이다. 어느 사무라이는 집 안의 화로가 돌아다녀도 ‘화로는 다리도 세 개나 있으니 당연하다’, 차를 담아두는 단지가 말을 해도 ‘단지에는 입이 있으니

당연하다며 무서워하지 않았고 결국 괴이는 잠잠해진다. 그러나 후반에서 사무라이는 죄없는 하인을 베어 죽이고, 살해당한 하인의 환영에 시달려 미쳐 죽는다. 괴이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 (E)이야기 구조에 라쿠고(落語)적인 ‘웃음’의 요소가 갖춰진 이야기

A~D의 요소는 라쿠고가 많이 포함된 것이며, (E)를 A~D와 병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야기 말미에 반전을 마련하고, 또한 라쿠고나 소화집(笑話集)과 아주 흡사한 성격의, 웃음의 요소가 짙은 이야기>로 본다.

앞서 말한 『가이단 오토기자쿠라』는 거의 모든 장의 말미에 반전이 있으며 문장도 희문조(戲文調)이다. 이야기 틀도 라쿠고와 가까운 것이 많다(예를 들어 5권 3 후반은 라쿠고 ‘왕자의 여우’와 같은 이야기이다). 괴담과 우스개미의 융합을 목적으로 한 듯 이 작품에 관해 미야모토(宮本) 씨는 ‘이 시기의 우키요조시라는 장르의 다양성’ 면에서, 곤도(近藤) 씨는 ‘근세 후기의 괴이물 그림책(草双紙)에 영향을 주었다’는 면에서 주목하고, 아마구치(山口) 씨는 이 작품이 사이카쿠(西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한다.

『괴담 오토기자쿠라』만큼 철저하지는 않지만 사이카쿠 이전의 가나조시나 사이카쿠와 거의 동시기의 니시무라본(西村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고킨 하쿠모노가타리 효반(古今百物語評判)』 3권의 5이다.

너무도 가난한 남자의 어깨 위로부터 어느 날 오 촌 정도의 것이 떨어졌다. 보니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 ‘무어냐하고 물으니 ‘가난뱅이 신이다’라고 답했다. 남자가 처자식을 불러모아 ‘이로써 가난과는 인연이 끊어졌다’며 기뻐하던 차에, 가난뱅이 신이 웃으며 말하기를 ‘당신 몸에는 너무 많은 가난뱅이 신들이 꼭 차서 들러붙어 있어서 내가 밀려 떨어진 것뿐이오’라고 했다. 남자는 흥이 확 깨졌고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근세 초기의 소화집(噺本) 대표작 『세이스이쇼(醒睡笑)』1권 ‘과도한 축하도 별난 것(祝ひ過ぎるも異なもの)’ 제4화와 거의 같은 이야기이다. 다음은 『오토

기 비쿠니』4권의 3이다.

집은 부귀하나 주판을 끌어안고 태어나 천성이 너무도 인색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가 급성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빠지자 가족이 약을 먹이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입을 다물고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이건 공짜로 받은 약이요’라고 외치자 남자가 드디어 약을 먹고 목숨을 건졌다.

이것도 근세 초기의 『사무카와뉴도 히키(寒川入道筆記)』에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한 『긴다이 하쿠모노가타리』 1권의 2는 라쿠고 ‘모토이누(元犬)’와 비슷한 발상이다.

#### 4

이렇게 근세 초기의 괴이소설 중에는 일찍부터 웃음의 요소가 존재했다. 작품 안에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섞일 경우가 많았는데, 시대가 지나자 하나의 이야기 안에 우스개 요소와 괴이가 혼재하는 이야기, 즉 괴이와 웃음을 융합시킨 이야기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원래 괴이와 웃음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앞서 A~E에서 보인 웃음의 요소를 가진 이야기는 근세의 소화집이나 현행 라쿠고에 많이 존재하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유령이나 요괴 등의 괴이가 나타나는 우스개나 라쿠고도 실로 많다.(주석7) 근세 초기의 서적 목록에서는 괴담집도 소화집과 마찬가지로 ‘우스운 이야기 책(嗤之本)’으로서 분류되었다.(주석8)

그렇다면 괴이소설 중에 웃음의 요소가 섞이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을 들어보기로 한다.

- 【기담의 아래를 포괄】 원래 ‘기담’ 즉 진기한 이야기를 모을 의도로 작자에게 괴담과 우스개를 딱 잘라 구별한다는 의식이 희박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 【인간형상 수단으로서의 공통성】 괴이와 웃음이 모두 긴장과 이완의 극한

상태나 비합리,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대단히 내면적인 부분이나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데에 유효하다. 또한 괴이와 골계도 ‘비현실’ ‘비상식’이라는 점에서 막부의 출판, 언론통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우화(寓言)’로서도 유효했다.

- **【우스개 이야기의 장】**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저녁 이야기 모임에서는 괴담이나 우스개 등 자극과 기지, 해학이 풍부한 이야기를 모두 선호했다. (주석9)
- **【우스개를 말하는 사람】** 우스개를 유포하고 전파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담당 한 것으로 보이는 창도승(唱導僧), 순례승, 걸식승 등의 예능자들은 불교포교의 인과담으로 괴이담뿐 아니라 축언으로서의 우스개, 골계담도 이야기했다.
- **【언어에 대한 신앙】** 언어유희에는 일본인의 고대 이래의 언령신앙(言靈信仰)과 이어지는 축언성이 있고, 괴이를 말함으로써 괴이를 내쫓으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를 쫓고 미리 축하하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주석10)
- **【오사카(大坂)의 풍토】** 오사카의 괴담은 사이카쿠가 그랬듯이 주된 관심을 인간과 그 불가사의함에 두고 있으며, 묘하게 합리주의적인 면이 있다. 그러한 간사이 지방(上方)의 우키요조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점이 괴담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주석11)
- **【근세의 합리적 정신의 신장】** 겐로쿠(元禄) 이후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처럼 괴이를 소박하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이를 부정하는 의식도 서서히 강해졌다.
- **【변혹물(弁惑物)의 발생】** 앞의 항목과도 관계있다. 괴담 중 『고킨 하쿠모노가 타리 효반(古今百物語評判)』을 효시로 하여 주로 유교에 기초한 계몽적 입장에서 괴이를 미망으로 보고 부정하는, 변혹물이라고 칭할 만한 장르의 작품군이 나온다. 이들은 괴담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주석12)
- **【이야기의 복잡화】** 괴담이든 우스개든 틀이 정해져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한편 소설사의 흐름은 사이카쿠 이후는 취향주의, 표현주의 쪽으로 나아간다. 괴담에서도 이질적 요소를 취향으로 하여 섞음으로써 이야기를 복잡화(複層化)하고 의외성을 갖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닐까?
- **【골계 장면을 연출하는 기능】** 연극에서 긴장의 클라이맥스 전에 웃음의 장면(골계 장면)을 끼워 넣고, 일시적 이완감으로 뒤에 이어지는 긴장을 보다 높이려고 한다. 괴담집이 우스개를 혼입시키는 데에도 비슷한 의도가 있었을지 모른다.

이상 근세 전기의 괴담집에 웃음의 요소가 많이 혼재하는 예를 소개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거론해 보았다. <괴이>와 <웃음>은 모두 괴담에 한하지 않고 근세문학 전체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테마이다. 이번에는 실로 산만하고 영성한 ‘중간보고’ ‘문제제기’가 되어 버렸지만, <웃음>이 갖는 의미의 천착이나 사이카쿠나 아키나리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정립 등에 대해 더욱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注

- (1) 스미에 존즈 씨 「하코네의 건너편-에도의 괴이 취미와 이야기에 대한 욕망(箱根の向こう—江戸の怪異趣味と物語への欲望—)」(세키네 에이지(関根英二) 편 『노래의 울림, 이야기의 욕망-미국에서 읽는 일본문학-(うたの響き・ものがたりの欲望—アメリカから読む日本文学—)』1996년, 森話社), 아담 커벳 편 『에도 요괴 책자(江戸化物草紙)』(1999년, 小学館), 아담 커벳 『<고단샤 선서 메체(講談社選書メチエ)>에도 골계 요괴 열거(江戸滑稽化物尽くし)』(2003년, 講談社), 아담 커벳 『모몬가 대 미코시뉴도-에도의 요괴들-(ももんがが対見越入道—江戸の化物たち—)』(2006년, 講談社), 가가와 마사노부(香川雅信) 「놀이 속의 요괴들-근세 후기의 요괴관 전환-(遊びの中の妖怪たち—近世後期における妖怪観の転換—)」(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편 『일본요괴학대전(日本妖怪学大全)』2003년, 小学館) 가가와 마사노부 『에도의 요괴혁명(江戸の妖怪革命)』(2005년, 河出書房新社)등.
- (2) 곤도 미즈키(近藤瑞木) 「골계괴담의 조류-구사조시의 우키요조시 『괴담 오토기자쿠라』의 향수-(滑稽怪談の潮流—草双紙に於ける浮世草子 『怪談御伽桜』の享受—)」(『인문학보(人文學報)』402호, 2008년 3월).
- (3) 아마구치 쓰요시(山口剛) 「괴이소설연구(怪異小説研究)」(『일본문학강좌18(日本文学講座一八)』1928년, 新潮社), 후에 『에도문학연구(江戸文学研究)』(1933년, 東京堂出版), 『아마구치 쓰요시 저작집 제2권(山口剛著作集第二卷)』(1972년, 中央公論社)에 다시 수록. 미야모토 우키코(宮本祐規子)(구두발표) 「『괴담 오토기자쿠라』와 그 주변(『怪談御伽桜』とその周辺)」, 일본근세학회2007년도 춘계대회(日本近世文学会平成19年度春季大会)(아오야마학원대학 캠퍼스에서 2007년 6월 9일). 곤도 씨의 주(2)의 논고와 「『괴담 일시삼리』에 관하여-『당세행차제』의 개고본-3권의 번각 부가(『怪談一時三里』について—『当世行次第』の改題本—付三之卷翻刻)」(『인문학보(人文學報)』362호, 2005년 3월).
- (4) 다카다 마모루(高田衛)·우도 히로시(有働裕)·사에키(佐伯) 공편 『사이카쿠와 우키요조시 연구(西鶴と浮世草子研究)』2호<특집·괴이>(2007년 11월, 笠間書院)의 부록CD 「괴이물 삽화 대전(怪異物挿絵大全)」(곤도 미즈키(近藤瑞木)와 사에키(佐伯) 공편). 본 CD에는 근세 전기의 주된 괴이소설 26 작품 중의 전 삽화를 수록하며 이야기 줄거리와 그림 해설을 추가했다.
- (5) 시노하라 스스무(篠原進) 「우키요조시의 기수역(浮世草子の汽水域)」 『우키요조시연구(浮世草子研究)』창간준비호(2004년 11월), 및 이쿠라 요이치(飯倉洋一)의 「『기담』의 장(『奇談の場)』(『어문(語文)』78호, 2002년 5월)·「우키요조시와 독본의 사이(浮世草子と読本のあいだ)」(『국문학(国文学)』50권 6호, 2005년 6월)등의 「기담(奇談)」의 문학사에 관련된 일련의 논고.
- (6) 주(3)과 같음.

(7) 라쿠고(落語)에서 유령 등의 괴이 요소를 포함하는 변신담에 「三年目」「幽女買い」「幽霊飴」「幽霊長屋」「幽霊の鑑札」「魂の入れ替え」「恪気の火の玉」「お七の幽霊」「吉田御殿」「応挙の幽霊」「野ざらし」「西京土産」「いが栗」「反魂香」「たちきり」「二本の指」「へっつい幽霊」「皿屋敷」「お菊の幽霊」「もう半分」「米搗の幽霊」「幽霊車」「朝友」「死神」「首提灯」「胴斬り」「胴取り」「地獄八景」「蛇含草」「一眼国」「王子の狐」「七度狐」「狐憑き」「狸賽」「狸の釜」「狸の札」「狸の鯉」「狸化寺」「田能久」「元犬」 등이 있다.

참고로 이시이 아키라(石井明) 씨는 「라쿠고의 유령(落語の幽霊)(上・下)」(『문인(文人)』11·12호, 1986년 10월·1987년 3월)에서 유령이 등장하는 라쿠고 이야기를 여러 개 소개하며, “라쿠고에 등장하는 여자 유령은 모두 하나같이 귀엽고 순정적입니다. 어쩌면 남성이 이상화한 여성상을 유령으로 그려낸 것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한다.

(8) 다치카와 기요시(太刀川清) 『근세괴이소설의 연구(近世怪異小説の研究)』(1979년, 笠間書院)42쪽에 지적이 있다.

(9) 고바야시 유키오(小林幸夫) 「밤이야기의 재미-오토기와 하쿠모노가타리-(夜咄の俳諧一伽と百物語-)」(『도카이학원 국어국문(東海学園国語国文)』42호, 1992년 10월, 『이야기·잡담의 전승세계-근세설화의 성립-(咄・雑談の伝承世界—近世説話の成立—)』<1996년, 三弥井書店>에 재록) 등.

(10) 고이카와 하루마치(恋川春町)의 기묘시(黄表紙) 『辞闘戦新根(ことばたたかいたらしいのね)』(1778년(安永七年) 간행)에서는 당시의 유행어가 요괴화되는 취향이 마련되어 있다.

(11) 다카다 마모루(高田衛) 『오사카 괴담집(大坂怪談集)』<1999년, 和泉書院> 「해설」.

(12) 다치카와(太刀川) 「괴담의 변혹물-망자편수설화의 경우-(怪談の弁惑物—亡者片袖説話の場合-)」(『학해(学海)』16호, 2000년 9월), 사토 다이지(佐藤太二) 「변혹물 괴담의 시각(弁惑物怪談の視角)」(노무라 준이치(野村純一) 편 『전승문학연구의 방법(伝承文学研究の方法)』, 2005년, 岩田書院).





## 近世前期怪異小説と笑い

佐伯孝弘

### 一

近世における最も有名で優れた怪異小説は、周知の如く上田秋成の『雨月物語』だが、本稿では『雨月物語』以前の、近世初期・前期の短編集形式の怪異小説を採り上げ、それらの中の怪異ならぬ「笑い」の要素について考察したい。

近世後期の戯作や文化に見られる怪異と笑いとの関係については、既に先学の諸論考により、妖怪物の黄表紙や種々の妖怪ブームの中に、妖怪の「商品化」、親しみ易い「キャラクター」化、娯楽化が見られ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注一)つまり、近世後期には恐ろしいはずの妖怪が、現代のキティちゃんやキューピーちゃんの如く、人々から愛される親しみやすい「キャラクター」へと変化する現象が起きていた。

こうした怪異の娯楽化、怪異物における笑いの要素の混入は、享保十六～二十年(一七三一～三五)頃の刊行と推定される(注二)浮世草子『怪談御伽桜』にも見られ、戯作に先行するものとして、早くは山口剛氏、最近では宮本祐規子氏・近藤瑞木氏が注目しておられる(注三)。

稿者は以前編集に関わらせてもらった雑誌の付録CD(注四)を作成する仕事で、近世前期の主な怪異小説を概観する機会があった。その際、怪談集の中に怪談らしくない話や、笑い話的要素を持つ話が多く混じっていることが印象に残った。そこでここでは、怪異と笑いの混合や、怪異の娯楽化が、早く近世初期の仮

名草子や近世前期の浮世草子の怪異小説の中に既にその兆候が見られる点について、以下見て行きたい。

二

概観した作品名を挙げる。

- 『奇異雑談(ぞうたん)集』編者未詳。写本は上下二冊。版本は六巻六冊。近世初期の成立か。写本(三十九話所収)が先に流布し、一部を省いて貞享四年(一六八七)に版本(三十四話 所収)刊。
- 『因果物語』(平仮名本)鈴木正三の原作。平仮名本と片仮名本があり、平仮名本(寛文年間の刊か)は六巻六冊で全八十六話。平仮名本は片仮名本を増補し文学性を強めたもので、浅井了意の撰か(正三弟子の恵中撰とも)。
- 『曾呂里(そろり)物語』(『曾呂里物語』)作者未詳。五巻五冊。寛文三年(一六六三)刊。成立を更に古い万治三年(一六六〇)頃とする説も。全四十一話。
- 『伽婢子(おとぎぼうこ)』浅井了意作。十三巻十三冊。寛文六年(一六六六)刊。全六十八話。
- 『宿直草(とのいぐさ)』(別名『御伽(おとぎ)物語』)荻田安静の筆録した原著を、富尾似船(じせん)が増補編集したとされる。五巻五冊。延宝五年(一六七七)刊。全六十八話。
- 『諸国百物語』作者未詳。五巻五冊。延宝五年(一六七七)刊。全百話。
- 『新御伽婢子』洛下寓居(西村市郎右衛門)作。六巻六冊。天和三年(一六八三)刊。全四十八話。
- 『宗祇(そうぎ)諸国物語』洛下旅館(西村市郎右衛門か)作。五巻五冊。貞享二年(一六八五)刊。全三十六話。
- 『古今(ここん)百物語評判』山岡元隣作。元恕の補筆編集。五巻五冊。貞享三年(一六八六)刊。別名『百物語評判』。全四十二話。
- 『浅草拾遺物語』洛下旅館(西村市郎右衛門か)作。四巻四冊。貞享三年(一六八六)刊か。全十六話(但し巻四末尾の一話は章題のみを残して本文は欠丁)。
- 『御伽比丘尼』西村市郎右衛門作(代作者を想定する説も)。五巻五冊。貞享四年(一六八七)刊。全二十二話。

- 『狗張子(いぬはりこ)』浅井了意作。七卷七冊。元禄五年(一六九二)刊。全四十五話。
- 『玉櫛笥(くしげ)』林義端(文会堂)作。七卷七冊。元禄八年(一六九五)自序。全三十一話
- 『玉笥子(ははぎ)』(『玉笥木(ははき)』とも)。林義端作。六卷六冊。元禄九年(一六九六)刊。全十七話。
- 『善悪報(むくい)ばなし』作者未詳。五卷五冊。成立は寛文十年(一六七〇)頃かと推測されるが、刊行は遅れ元禄六～十年(一六九三～九七)頃の刊。全六十一話。
- 『雨中友(うちゅうのとも)』(改題本『万世(ばんせい)百物語』)作者未詳。五卷五冊。元禄十年(一六九七)序。唯一の伝本(東北大学狩野文庫本)が巻三迄の端(は)本で刊記を欠き、書名の埋木等の状況から怪異物仮名草子の改題本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宝暦元年(一七五一)刊の改題本『万世百物語』(「烏有庵」の作とする序文を付す)があり、巻四以降は改題本に拠る。全二十話。
- 『御前於伽(ごぜんおとぎ)』都の錦作。六卷六冊。元禄十五年(一六九二)刊。全二十四話。
- 『拾遺御伽婢子』柳糸堂作。五卷七冊。宝永元年(一七〇四)刊。全二十四話。
- 『多満寸太礼(たますだれ)』辻堂兆風子作。七卷七冊。宝永元年(一七〇四)序。全二十七話。
- 『金玉(きんぎょく)ねちぶくさ』(別名『金銀ねちぶくさ』)章花堂作。八卷八冊。宝永元年(一七〇四)刊。全二十一話。
- 『御伽人形』苗村松軒作。六卷六冊。宝永二年(一七〇五)刊。全四十三話。
- 『御伽百物語』青木鷺水作。六卷六冊。宝永三年(一七〇六)刊。全二十七話。
- 『諸国因果物語』(別名『近代因果物語』)青木鷺水作。六卷六冊。宝永四年(一七〇七)刊。全三十話。
- 『新玉櫛笥(くしげ)』青木鷺水作。六卷六冊。宝永六年(一七〇九)刊。全十九話。
- 『一夜(ひとよ)船』北条団水編。六卷六冊。正徳二年(一七一二)刊。全二十六話。書肆が持ち込んだ作者不明の草稿を補訂した旨の序文を信じれば、実作者未詳、団水の補筆・編集。また、草稿の作者を団水弟子東歌とする説や、序文を虚構と見て団水実作とする説も。
- 『和漢乗合船』落月堂操后作。六卷六冊。正徳三年(一七一三)刊。
- 『怪醜夜光魂(かいしゅうやこうのたま)』花洛隠士音久作。五卷五冊。全二十話。

- 『太平百物語』市中散人祐佐(ゆうすけ)(菅生(かんしょう)堂人恵忠居士)作。五巻五冊。享保十七年(一七三二)刊。全五十話。作者は版元である大坂の書肆河内屋宇兵衛か。
- 『怪談御伽桜』都塵舎雲峰作。五巻五冊。享保十六～二十年(一七三一～三五)頃の刊。全十五話。
- 『御伽厚化粧』筆天斎(中尾伊助)作。五巻五冊。享保十九年(一七三四)刊。全十五話。
- 『新説百物語』高古堂主人作。五巻五冊。明和四年(一七六七)刊。全五十三話。
- 『近代百物語』鳥飼醉雅作。五巻五冊。明和七年(一七七〇)刊。全十五話。作者醉雅は、本作の版元たる大坂の書肆吉文字屋市兵衛(但し本作序文には、諸国遍歴の僧が見聞した怪談を語ったのを川崎氏が書き留めた書を得て版行した旨記す)。

以上、近世前期の仮名草子・浮世草子に分類される怪異小説のほとんどを網羅したつもりだが、西鶴作で怪異色のある雑話物『西鶴諸国ばなし』(貞享二年(一六八五)刊)と『懐硯』(同四年(一六八七)刊)は入れていない。既に定説となっていることだが、西鶴の作品においては作者の関心は人間、刻一刻と実社会の中で揺れ動く「世の人心」の有様、その不可解さにある。『西鶴諸国ばなし』序文の「人は化物」という言葉に、西鶴の関心の在処は端的に示されていよう。西鶴作品においては往々にして怪異は人間の不可解さや強(したた)かさを際だたせるための「脇役」に過ぎず、あれだけの筆力を有したにも拘らず西鶴の怪異譚は怖くない。今回は、内容や書名などから、従来「怪異物」として扱われることの多い作を調査対象とすることにして、西鶴は割愛した。

また、末期浮世草子には、浮世草子とすべきか初期読本とすべきか、分類・境界の難しい作品群がある。最近、篠原進氏はこうした境界領域を「汽水域」と称して、また飯倉洋一氏は「奇談」というジャンルの観点から、文学史の結節点として注目しておられる(注五)。そうした境界期の怪異物作品のうち、静観房好阿作の『御伽空穂猿(うつぼざる)』(元文五年(一七四〇)刊)・『怪談登志男(としおとこ)』(寛延三年(一七五〇)刊)・『怪談御伽童(わらわ)』(明和九年(一七七二)刊)は入れず、一方、読本に分類されることの多い『新説百物語』(明和四年(一七

六七)刊)・『近代百物語』(同七年(一七七〇)刊)を入れるなど、不統一の形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先に怪異物のCDに収録した二十六作品に更にj六作品を増補した上で、挿絵の有無に拠らず全部の章を当たり直すつもりだった。しかし、未だ調査が不徹底で「中間報告」と言うべき状態である。漏れも多かろうことを予め断っておきたい。

### 三

前置きはこれくらいにして本題に入る。一覧に並べた作品群のうち、十数作品より、章の数にして四十話程の「笑い」の要素を持つかと思える話を抽出できた。調査が不十分なままである上に、何を持っておかしみを感じるかという「笑い」のツボはまさに主観的で人それぞれであるから、この数自体はほとんど意味を為すまい。ただ、その気になって探せば怪談集の中に「笑い」「おかしみ」の要素は非常に多く見出だせるのだということが、ここでは重要である。

怪異小説中に混入する「笑い」の話がどんな内容かを見てみる。試みに、次の五つに分類をしてみた。

- (A) 動物から化かされる話
- (B) 人間が自ら醜態を晒(さら)す話
- (C) 怪異を偽造若しくは誤認する話
- (D) 言葉遊びを含む話
- (E) 話の構造に落語的な「笑い」の要素が備わる話

#### (A) 動物から化かされる話

動物の怪異譚は中古・中世の説話にも多く見え、典型的・代表的な怪異説話の「型」と言って良い。人に化けたり人を騙したりする動物としては、狐・狸・猫・蛇・蜘蛛などが挙げられるが、ユーモラスな話の素材となっているのは圧倒的に

狐が多い。それだけ狐が当時の人々にとって身近な存在であり、「狐が化ける」というのも怪異というより「現実」「常識」的な事柄と受け止められていたのだろう。

例えば、『諸国百物語』巻一の六は次のような話だ。

ある山伏が山中を旅していたところ、道端で狐がゆったりと昼寝していた。悪戯心を起こした山伏は、狐の耳元でほら貝を吹き鳴らす。狐がびっくりして逃げ去るのを見て、山伏は愉快がった。その日暮れ、宿に困った山伏は、墓場の火葬場の天井に登り一宿する。夜半に葬列が墓地を訪れ葬礼を済ませた後、遺体に火をかけて去って行った。突然火の中から死人が身震いをして起き上がり、天井にいた山伏の近付いて来る。驚き恐れた山伏は死人によって天井から突き落とされる。気が付くとそこは元の野中で、既に日も高く昇っていた。全ては山伏に驚かされた狐の仕業だった。

狐や狸に人が化かされる話は他に『因果物語』巻五の一、『伽婢子』巻九の一、『多満寸太礼(たますだれ)』巻六の三、『和漢乗合船』巻四の一、『太平百物語』巻五第三十九、『怪談御伽桜』巻四の一、同巻四の二など。僧や武士、智恵自慢する町人、医者など、知識人たる身分の者が、見事に騙され醜態を晒す。『太平百物語』巻一第三や『近代百物語』巻四の二は梗概を示した『諸国百物語』同様、人から何か害を受けた狐が仕返しのため当該の者を化かす話で、後者は男色のバレ咄的なおかしきも漂う。仕返しといっても殺したり不具にしたりといった凄惨なことでなく、人を化かして笑い者にする一種の「たわいもなさ」が、おかしきを醸し出している。

## (B) 人間が自ら醜態を晒(さら)す話

(A)の動物に化かされる話も人が醜態を晒す話だが、人間が自ら愚かな行為をして笑い者になる話もある。怪異の要素を全く欠く話である。例えば、『宗祇諸国物語』巻二の二は次のような話。

二月半ば都の花見の喧噪を避けた宗祇は、伏見の里の墨染桜を見に出かけて、一人古歌を口ずさんでいた。すると、隣で酒宴をしていた男が酒を無理に勧めて来

る。断ると刀を抜いて責めるので、心ならずも一盃干すと更に無理強いする。困った宗祇が狂歌を詠むと、酔客らは恥じたのか、それとも酔いが醒めたのか、足早に立ち去った。

酒の上での醜態は思い当たる向きも多かろう。『御伽比丘尼』巻一の四も花見の場で、女達の席にしつこく言い寄った武士が、女達から酒を勧められ酔い潰され刀と羽織を取られてしまう話。酒に加えて好色ゆえの失態と言える。

### (C) 怪異を偽造若しくは誤認する話

人が悪戯(いたずら)心から怪異を偽造して他人を怖がらせようとする話や、「怖い、怖い」と思う恐怖心から怪異でも何でもないものを怪異と誤解する話である。読者が初めから偽者の怪異だと分かっている場合は、知らずに怖がっている作中人物は読者の目から滑稽に見える。一方、読者も正体が初め分からず作中人物と一緒に恐怖を感じる場合は、最後に怪異でも何でもなかったことが判明すると、ほっとした安堵感や意外感から「笑い」が生ずる。『宿直草』巻二の七は次のような話。

ある夜若者達が寄り集まり鬼が住むという宮の噂をしていて、一人の者が「これからその宮へ行く」と言って制止も聞かず、ついに賭(かけもの)となって出かけた。残った者達は「これを脅そう」と思い、一人が白い着物に捌き髪の姿で宮へ先回りし、怯えつつも鳥居の上で待ち伏せする。一方最初の男も、逸(はや)って出たものの怖くなり、鬼の面を着け赤い着物を着て行った。鳥居の上の者はこれを見て鬼かと怯え、鬼に扮した男もまた鳥居の上の白い者を見て怯えた。上の男はたまたま鳥居から落ち、二人揃って気絶。他の者達が様子を見に行き二人を呼び生かし、「偽者は駄目だ」と笑い合った。

他に『宿直草』巻四の十二、『雨中友』巻五の三等も怪異の偽造、『宿直草』巻四の十三、『諸国百物語』巻五の十七等も怪異の誤認の話。

注目したいのは『玉箒子』巻四の二で、話の前半は主人公の男が隣家の妻と密

通していたが実は自分の妻も隣家の主人と通じていたというダブル不倫の設定で、男が夜忍んで来た密男(まおとこ)を見て妖怪と間違え病づくという笑話仕立て。後半になると、高德の僧が男の宿縁を知るため入定し蘇生し、男は神徳と祖先の加護により助かり密男は早世、という怪異譚らしい筋立てとなる。『御伽比丘尼』巻二の二も、前半は遊び人の男が白鼠を見て「福神の使い」と思い祝宴を開くが、実はただの黒鼠に饅頭(うどん)粉が付いて白くなっただけと知り大笑いとなる。後半は、男の夢に大黒神が現れ「鼠の通った跡を見よ」とお告げ。翌朝見ると「真面目に働け」との教えが書かれていて、男は以後改心する。笑話と靈験譚を融合させ一話としている。

怪異の偽造と言え、中世の狂言に『武悪(ぶあく)』『塗師』『石神(いしがみ)』『仁王』など、偽(にせ)幽霊・偽神仏の趣向の演目がある。こうした狂言から、何らかの影響を受けているかもしれない。

#### (D) 言葉遊びを含む話

現代で言えば洒落(しゃれ)に当たる秀句・地口や、軽口、なぞ等を含む話である。例えば、『宗祇諸国物語』巻一の二は、次のような話。

旅の途中の武蔵野で、宗祇が喉の渇きに困り、ある民家の女に茶を乞うた。女は何も言わず障子を閉めて奥へ入ってしまった。腹を立てた宗祇が「引き立つる障子がお茶になるならば門(かど)の口こそ呑(の)むべかりけれ」と狂歌を詠んで去ろうとすると、女が茶を持って出て来て宗祇の袖を控え微笑み、「お茶ひとつぬるむほどだにあるものをいかに嗔(しん)い(い)のわきかへるらん」と返歌をした。宗祇は女の機知に心惹かれたが、日暮れも近くそのまま立ち去った。

湯が「沸く」と怒りが「沸く」を懸けた秀句である。『宗祇諸国物語』巻三の五・巻五の一等にも秀句問答が、『御伽比丘尼』巻二の一には軽口の好物問答が、『怪談御伽桜』巻三の一には「にやんまみだ仏」、『新説百物語』巻一の一挿絵には「なむうみ豆腐」という地口(猫の鳴き声、唐人言葉と「南無阿弥陀仏」の洒落)が見える。

更に「化物問答」の話型の話は、なぞを解いて化物の正体を見破るもの。『曾呂



利物語』巻四の四は次のような話。

伊予国のある山寺に、いつのころからか化物が出て住職の僧を取ってしまうようになり、寺は荒れ果ててしまっていた。一人の僧がこの寺の住職になることを望み強引に寺に泊まる。夜になってから「円遙坊(えんようぼう)はいらっしゃるか。こんかのこねん、けんやのぼとう、そんけいが三足、こんざんのきうぼくでございます」と案内を乞う声がし、円遙坊が出て来て様々に持てなす。僧は化物の名前から、「円遙坊」は丸瓢箪、「こんかのこねん」は鯰、「けんやのぼとう」は馬の頭、「そんけいの三足」は三つ足の蛙、「こんざんのきうぼく」は古い朽木が年を経て化けたものだと思破り、それらの化物達を皆棒で打ち砕いて退治した。僧は智者と讃えられ寺を再興させた。

「乾谷(けんや)の馬頭(ぼとう)」即ち「戌亥(いぬい)(北西)の方角の谷の、馬の頭蓋骨」の如き、漢字の音訓を利用したなぞであり、『宿直草』巻一の一もほぼ同話。昔話の「蟹問答」、狂言の『蟹化物』がこれと同想の話であり、影響関係が想定できる。

『近代百物語』は前半が、言葉の綾(あや)で怪異を笑い去る話。ある侍は家内の火鉢が動いても「火鉢は三本も足があるから道理だ」、茶壺がしゃべっても「壺には口があるから道理だ」と怖がらず、怪異は収まる。ところが後半で、侍は無実の家来を手討ちにして、殺した家来の幻影に悩まされ狂死。怪異が我が心から起きることを示す話となっている。

### (E) 話の構造に落語的な「笑い」の要素が備わる話

A～Dの要素は落語が多々含むものであり、(E)をA～Dと並記するのは厳密に言えば変なのだが、ここは<話の末尾にオチを備え、且つ落語や噺本と酷似する話柄の、笑いの要素の濃い話>とする。

先に述べた『怪談御伽桜』はほとんど全ての章が末尾にオチがあり、文章も戯文調。話型も落語と近い話も多い(例えば巻五の三後半は落語「王子の狐」と同話)。怪談と笑話の融合を目指すか如き本作につき、宮本氏は「この時期の浮世草子というジャンルの多様性」の面から、近藤氏は「近世後期の怪異物草双紙への影響」の

面から注目し、山口氏は本作が西鶴から影響を受けたと推測されている(注六)。

『怪談御伽桜』程徹底してはいないものの、西鶴以前の仮名草子や西鶴とほぼ同時期の西村本に、次のような話がある。『古今百物語評判』巻三の五。

極めて貧しい男の肩の上から、ある日、五寸ほどのものが落ちて来た。見ると人の形をしている。「何者か」と問うと、「貧乏神だ」と答えた。男が妻子を呼び寄せ、「これで貧乏と縁が切れる」と喜んだところ、貧乏神が笑って言うには、「御前の体にはびっしりと多くの貧乏神が取り憑いてひしめいているため、自分は転げ落ちただけである」と。男は興ざめ呆れ果てた。

近世初期の噺本の代表作『醒睡笑』巻一「祝ひ過ぎるも異(り)なもの」第四話と、ほぼ同話である。次に、『御伽比丘尼』巻四の三。

家は富貴であるが、算盤を抱いて誕生し生来極端に吝嗇な男がいた。この男が急病で危篤に陥った時に、家族が薬を飲ませようとした。しかし、男は口を閉じて飲もうとしない。そこで、妻が「これはもらった薬だ」と叫んだところ、男は漸く薬を口にして命を取りとめた。

これも近世初期の『寒川入道筆記』に類話が載る。また、『近代百物語』巻一の二は落語「元犬」と同想。

## 四

このように、近世前期の怪異小説の中に早くから笑いの要素が存在した。作品の中に幾つか笑話的な話が混じる場合が多かったが、時代が下ると一つの話の中に笑話的要素と怪異とか混在する話、つまり怪異と笑いを融合させた話も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

そもそも怪異と笑いは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にある。先にA～Eで示したような笑いの要素を持つ話は、近世の噺本や現行の落語に多々存在するし、ここで具体的に内容を紹介する余裕はないが、幽霊や妖怪といった怪異が現れる笑話や落語も実に多い(注七)。近世初期の書籍目録においては、怪談集も噺本と同じ「咄之本」として分類されていた(注八)。

では、怪異小説の中に笑いの要素が混じるのは、いったい何故だろうか。考えられる要因を挙げてみる。

- 【「奇談」の下の包括】 元々「奇談」即ち珍しい話を集める意図で、作者に怪談と笑話を截然と区別する意識が乏しかったとも思える。
- 【人間形象の手段として共通性】 怪異も笑いも共に、緊張や弛緩の極限状態や非合理・非常識の状況の中で、人間の非常に内面的な部分や本質的な部分を表すのに有効。また、怪異も滑稽も「非現実」「非常識」という点で、幕府の出版・言論統制をかいくぐる〈寓言〉としても有効。
- 【咄の場】 人々が語り合う夜咄の会においては、怪談や笑話など刺激と機知・諧謔に富んだ咄が共に好まれた(注九)。
- 【咄の語り手】 咄を流布・伝搬することを職業的に担ったと思われる唱導僧・巡礼僧・願人坊等の芸能者は、仏教布教の因果譚としての怪異譚のみならず、言祝(ことほぎ)としての笑話・滑稽譚も語った。
- 【言葉への信仰】 ことば遊びには日本人の古代以来の言霊信仰に繋がる祝言性があり、怪異を語ることによって怪異を払おうとしたのと同様に、魔を払い予祝する心意が含まれている(注十)。
- 【大坂の風土】 大坂の怪談は西鶴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主たる関心を人間とその不思議さに向け、妙に合理主義的なところがある。そうした上方浮世草子の特徴とも言える点が、怪談全体にも影響を及ぼした(注十一)。
- 【近世の合理的精神の伸長】 元禄以降、合理主義的な精神が発展するにつけ、人々は以前のように怪異を素朴に信ずるばかりではなく、怪異を否定する意識も徐々に強くなっていった。
- 【弁惑物の発生】 前項とも関係。怪談のうち、『古今百物語評判』を嚆矢として、主として儒教に基づく啓蒙的立場から怪異を妄誕として否定する、弁惑物と言うべきジャンルの作品群が出る。これらは、怪談の多様化を促す一因となった(注十二)。
- 【話の複雑化】 怪談も笑話も型が決まっておりマンネリ化し易い。一方、小説史の流れは、西鶴以降は趣向主義・表現主義の方向へ進む。怪談においても、異質の要素を趣向として混ぜることで話を複層化し意外性を持たせようと意図したのではないか。
- 【チャリ場的な機能】 演劇において緊張のクライマックスの前に笑いの場(チャ

り場)をはめ込み、一時の弛緩によってあとに続く緊張をより高めようとす  
る。怪談集が笑話を混入させることにも、同様の狙いがあったかもしれぬ。

以上、近世前期の怪談集に笑いの要素が多く混在することを紹介し、考え得  
るその要因を挙げてみた。〈怪異〉と〈笑い〉は共に、怪談に限らず近世文学全  
体を考える上でも、非常に大きなテーマである。今回は大雑把・雑駁な「中間報  
告」「問題提起」になってしまったが、〈笑い〉の持つ意味の掘り下げや、西鶴や秋  
成の作の文学史的な位置付けなど、更なる考察が必要だと考えている。

### 注

- (1) スミエ・ジョーンズ氏「箱根の向こう—江戸の怪異趣味と物語への欲望—」(関根 英二氏編『うたの響き・ものがたりの欲望—アメリカから読む日本文学—』一九九六年、森話社)、アダム・カバット氏編『江戸化物草紙』(一九九九年、小学館)、同氏『〈講談社選書メチエ〉江戸滑稽化物尽くし』(二〇〇三年、講談社)、同氏『ももんがが対見越入道—江戸の化物たち—』(二〇〇六年、講談社)、香川雅信氏「遊びの中の妖怪たち—近世後期における妖怪観の転換—」(小松和彦氏編『日本妖怪学大全』二〇〇三年、小学館)、同氏『江戸の妖怪革命』(二〇〇五年、河出書房新社)など。
- (2) 近藤瑞木氏「滑稽怪談の潮流—草双紙に於ける浮世草子『怪談御伽桜』の享受—」(『人文学報』四〇二号、二〇〇八年三月)。
- (3) 山口剛氏「怪異小説研究」(『日本文学講座一八』一九二八年、新潮社)、後に『江戸文学研究』(一九三三年、東京堂出版)、『山口剛著作集第二巻』(一九七二年、中央公論社)に再録。宮本祐規子氏(口頭発表)『「怪談御伽桜」とその周辺』、日本近世文学学会平成19年度春季大会(於青山学院大学青山キャンパス、二〇〇七年六月九日)。近藤氏の注(2)の論考と『「怪談一時三里」について—『当世次第』の改題本一付三之巻翻刻』(『人文学報』三六二号、二〇〇五年三月)。
- (4) 高田衛氏・有働裕氏・佐伯共編『西鶴と浮世草子 研究』2号〈特集・怪異〉(二〇〇七年十一月、笠間書院)の付録CD「怪異物挿絵大全」(近藤瑞木氏と佐伯の共編)。本CDには、近世前期の主な怪異小説二十六作品中の全挿絵を収録し、話の梗概と絵柄の解説を付した。
- (5) 篠原進氏「浮世草子の汽水域」『浮世草子研究』創刊準備号(二〇〇四年十一月)、及び飯倉洋一氏の「「奇談」の場」(『語文』78号、二〇〇二年五月)・「浮世草子と読本のあいだ」(『国文学』50巻6号、二〇〇五年六月)等の「奇談」の文学史に関する一連の論考。
- (6) 注(3)に同じ。
- (7) 落語で幽霊などの怪異の要素を含む変化噺に、「三年目」「幽女買い」「幽霊館」「幽霊長屋」「幽霊の鑑札」「魂の入れ替え」「恪気の火の玉」「お七の幽霊」「吉田御殿」「応挙の幽霊」「野ざらし」「西京土産」「いが栗」「反魂香」「たちきり」「二本の指」「へっつい幽霊」「皿屋敷」「お菊の幽霊」「もう半分」「米搗の幽霊」「幽霊車」「朝友」「死神」「首提灯」「胴斬り」「胴取り」「地獄八景」「蛇含草」「一眼国」「王子の狐」「七度狐」「狐憑き」「狸賽」「狸の釜」「狸の札」「狸の鯉」「狸化寺」「田能久」「元犬」等がある。  
ちなみに、石井明氏は「落語の幽霊(上・下)」(『文人』11・12号、一九八六年十月・一九八七年

三月)で、幽霊の登場する落語の噺を複数紹介し、落語に登場する女の幽霊はみな一様に可愛いくて純情です。もしかしたら、男が理想化した女性像を幽霊の上に描い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と述べる。

- (8) 太刀川清氏 『近世怪異小説の研究』(一九七九年、笠間書院)42頁に指摘がある。
- (9) 小林幸夫氏 「夜咄の俳諧一伽と百物語」(『東海学園国語国文』42号、一九九二年十月、『咄・雑談の伝承世界—近世説話の成立—』<一九九六年、三弥井書店>に再録)等。
- (10) 恋川春町の黄表紙 『辞闘戦新根(ことばたたかいあたらしいのね)』(安永七年(一七七八)刊)では、時の流行り言葉が化物となる趣向が構えられている。
- (11) 高田衛氏 『大坂怪談集』<一九九九年、和泉書院>「解説」。
- (12) 太刀川氏 「怪談の弁惑物—亡者片袖説話の場合—」(『学海』16号、二〇〇〇年九月)、佐藤太二氏 「弁惑物怪談の視角」(野村純一氏編 『伝承文学研究の方法』、二〇〇五年、岩田書院)。